

순천 '2021 e스포츠 페스티벌' 연다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순천만잡월드 옆 체험클러스터
소규모 대회·아카데미 등 다채

순천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순천만잡월드 옆 4차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에서 '2021 순천시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4차산업혁명박람회 '2021 NEXPO in 순천'과 '순천만잡월드'의 정식 개관일에 맞춰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존의 단순한 게임대회가 아닌 e스포츠 향유인

구 범위 확장을 통해 e스포츠를 문화콘텐츠로 정립해 순천을 e스포츠 도시로 브랜드 이미지화하고 e스포츠 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게임 유저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e스포츠 아카데미,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다.

순천시 주관으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전국의 수많은 e스포츠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태민 캐스터와 한상용 해설위원 등 전문 캐스터와 해설진이 함

께해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대회 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며, 대회 성적 우수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교육감, 전남도지사 등의 시상 및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2군 선수를 초대해 전국 아마추어 대회 우승자와 이벤트전을 개최하며, 대학 게임팀을 초청해 최강자전을 진행한다. 메인 경연대회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상설대회를 개최하고, e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 교육 강사진을 통한 e스포츠 게임 아카데미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

는 추억의 오락실과 미래지향적 VR 게임존 등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운영되며, 프로그래머의 게임 용품과 게임 굿즈 등을 전시해 관람객과 대회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천시가 e스포츠 산업 대표도시로서의 기초를 쌓는 계기를 마련하고, '2021 NEXPO in 순천'과 동시 개최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중요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여수시가 공원 환경 조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여수, 도시공원 음주·취식행위 단속

단속반 편성... 11월까지

여수시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코로나19 유행 사상 최다인 3,000명대로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가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 도시공원내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4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거북선공원, 웅천천수공원 등 7곳의 도시공원내에서 11월 30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야간 음주·취식행위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는 단속에 앞서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물 등을 부착했으며, 단속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과 선선한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찾고 있다"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가족 공감 숲 교육

트리클라이밍·오리엔티어링 운영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최근 제철철에서 '주말 가족 공감 숲 교육'을 주제로 썬 놀자 트리클라이밍과 오리엔티어링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참가인원을 축소해 소규모로 진행하고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꾀했다. 이틀간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나눠 각각 4회씩 활동하며 프로그램 간 동선을 달리했다.

재단에서는 트리클라이밍과 오리엔티어링을 교육적으로 접근해 아이들이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트리클라이밍은 로프를 이용해 나무를 오르내리거나 건너가는 자연 친화적 활동

이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몸풀기로 땅에서 나무 견기와 나무 스윙을 거쳐 본격적으로 나무에 올랐다.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여러 지점을 통과해 최종 도착지까지 찾아가는 스포츠다. 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연령대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해 운영했다. 1부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지점을 더 많이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2부에서는 더 빨리 목표지점을 찾아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목표지점을 찾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고 도착지에 들어오며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주최한 '주말 가족 공감 숲 교육'에서 참가 학생들이 트리클라이밍을 즐기고 있다. /곡성군 제공

청년 블랭크 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온라인 강의

여수시가 사회영역에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위한 청년 블랭크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청년들이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직접 조사해 오는 30일부터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부동산, 재테크, 결혼 및 육아, 경제 분야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블랭크 아카데미는 비대면 화상회의 프

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여수시 거주 청년은 여수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2주 동안 청년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업을 통해 배우지 못한 사회영역 중 청년들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재테크를 압도적인 1위로 꼽았고, 부동산, 경제·금융, 결혼 및 육아, 진로 고민이 그 뒤를 이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가을 관광지 '최우수 홍보상'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돋보여

순천시가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 등에서 안심하고 여행하기 좋은 순천의 매력적인 가을 관광지 홍보로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는 ㈜도트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후원했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일본, 중국, 페루 등 30여 국가에서 100여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5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됐다.

순천시는 홍보대사인 '무미 똥이'

를 활용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순천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재개될 해외여행 정보와 순천에서의 가을 여행을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홍보해 최우수 홍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관광박람회 등에서 두 번이나 수상한 것은 철저한 방역과 따뜻하고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한 결과"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주요 관광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6월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도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순천대, 창업동아리 역량강화 캠프 성료

순천대 창업지원단이 최근 학내 창업 동아리 13개 팀이 참가한 '2021년 창업동아리 역량강화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순천대 창업지원단은 창업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해 캠프를 개최하고 지식 재산권 교육 및 실습, 전문가 멘토링, 모의투자 IR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대상은 순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자

연발효 콤부차 생산유통을 창업아이템으로 한 '무한콤부' 팀이, 최우수상은 패션 일러스트 콘텐츠 기반의 문화상품을 개발한 'Day of blue' 팀이 수상했다.

최용석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여수 서강동 마을정원가꾸기 추진단 청결 활동

여수시 서강동 마을정원가꾸기 추진단이 최근 서시장 주변 주택가 일원에서 청결 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방문객이 많은 서시장과 주변 주택가 일대에서 생활폐기물 정리·택배 상자 정리, 쓰레기 줍기 등 섬섬 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을 실천했다. 조재복 서강동장은 "방문객이 많은 서시장과 주변이 깨끗하고 정돈된 으

마음이 되도록 청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강동 마을정원가꾸기 추진단은 통장단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5월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중순에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진남여중·고 앞 자투리땅에 배롱나무와 철쭉을 심어 마을 정원을 꾸밀 계획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시설 빵 나눔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배움터 동아리 회원들이 최근 '배움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청소년 베이커리 동아리 회원들은 직접 빵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익히며 정성스레 만들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찾아 만든 빵을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직접 만

든 빵을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을 하게 돼 보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나눔,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배움과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